

【한일관계사학회 30년사】

한일관계사학회, 30년을 말한다

- 역대 회장단 간담회 -

장소 : 한성백제박물관

일시 : 2022년 8월 25일 오후 3시~6시

참석 : 김문자, 장순순, 나행주, 이승민

역대회장 : 하우봉, 손승철, 연민수, 이훈

정성일, 남상호, 김동명, 현명철

한문중(서면)

녹취 : 신태훈, 민채윤

촬영 : 이지훈, 이준석

〈1부〉 개회

장순순 부회장 :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오래간만에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학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역대 회장님들을 모시고 ‘한일관계사학회 30주년을 말한다.’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참석하기로 예정된 분들이 14분의 회장님들이셨는데 이 가운데 민덕기, 한문중 선생님은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셨고, 정재정 선생님 경우에는 일본 출장 중이셔서 이분들을 빼고 현 김문자 회장님까지 아홉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굵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간담회를 위해서 멀리, 특히 정성일 회장님 경우 광주에서까지 와 주셨는데 아마도 이러한 힘이 우리 학회의 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자리에는 학회 창단 멤버가 상당히 계시는데요. 우리 학회는 1992년 5월 30일에 창립했습니다. 이에 관련된 사항은 잠시 후 손승철 선생님께서 말씀이 있겠습니다. 학회 30주년 행사는 전체 진행 과정을 기록으로 남길 예정입니다. 따라서 녹취도 하고 촬영을 해서 영상으로 남기려고 합니다. 이 행사를 준비하는데, 김문자 회장님 나행주 선생님 이승민 총무님이 많이 애쓰셨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기록을 위해서 녹취도 하시고 촬영도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촬영에는 상명대 재학생 두 분께서 애써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녹취에서는 또 강원대 대학원생 두 분이 오셨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순서는 이제 1부 2부 3부로 이어질 텐데요. 먼저 1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장님의 인사말 및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김문자 회장 : 네 안녕하세요. 김문자입니다. 올여름은 무척 덥기도 했고 최근에 코로나가 너무 극성을 부려서 많이 좀 염려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올해가 30주년인데요. 우리 학회에서 그동안 10주년, 20주년 때마다 학술대회도 하고 단행본도 만들고 이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0주년을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좀 다른 점이 하나 있었던 것은 이제까지 창립 멤버이셨던 중요한 역할을 해 주셨던 선생님들께서 그동안 퇴임들을 많이 하셔서 이런 학술대회가 아니면 참 뵙기가 좀 힘들어졌네요.

그래서 이제 이번 기회에 한번 학회장님 하셨던 분들을 한자리에 모셔서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는 그런 순수한 그런 생각에서 좌담회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동안 우리 학회에서는 많은 학술대회와 단행본을 냈지만, 영상 관련해서 중요한 학회 자체 행사 등을 영상화했던 작업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좌담회부터 우리 학회도 영상 기록을 남기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30주년이 됐는데 손승철선생님께서 30년 전에 쓰신 창립사를 다시 보내주셨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한일관계가 큰 변화없이 어려운 상황인 건 마찬가지로인 것 같고, 또 유례없이 어렵고 악화일로에 들어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0주년이 되면서 한번 좀 되돌아보고, 한일관계사를 전공하시는 연구진 선생님들이 이런 관계를 좀 더 나아지게 하는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랄까, 그런 좋은 의견을 좀 들어보고 이러한 의견을 향후에 학회에도 반영해서 또 우리 학회의 역할을 조금 더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 좌담회를 계획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길지 않지만 짧은 시간이라도 좋은 얘기 많이 나눠주시면 저희가 경청하고 또 기록을 해서 학회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또 끝나고 나서 또 뒤풀이 시간이 있어서 지금 공식적으로 나누지 못한 말씀은 그때 나누시면서 좋은 시간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순순 : 이어서 나행주 편집위원장님께서 그동안 학회의 현황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제2부〉 학회 현황보고

나행주 : 나행주입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건강하신 우리 역대 회장님들 모습을 뵈 수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제가 학회지 발행에 몇 년 동안 종사한 관계로 오늘 학회 현황 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 사항을 간단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0년의 한일관

계사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그 바탕 위에서 앞으로의 30년, 50년을 전망하는 그런 간담회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학회의 현재 상황을 회원 수 그다음에 월례 발표회 및 학술지 그리고 국내외 학술대회에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우리 학회에 큰 역할을 해주신 손승철 교수님이 작성해 주신 자료집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만, 먼저 현재 회원 수입니다. 그래서 손 교수님 자료 잠깐 보니까, 1992년 당시 17분이 학회를 시작해서 그다음 해에 38명 정도로 회원 수가 2배 증가를 했는데, 그걸 기준으로 보면 2022년 현재 여기 계신 교수님들하고 전문적으로 학계에서 연구자라고 할 수 있는 연구기관에 계시는 분들은 약 2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366명 회원 중에서 55% 정도가 전문 연구자이고, 또 절반 정도가 일반인들이라고 하는 통계를 알 수 있고요. 회원 수로 학회의 발전상을 비교한다면 1992년 당시에 17명이 20배 정도의 양적 증가, 1993년을 기준으로 하면 약 10배 정도의 양적 증가, 그래서 다른 여타의 학회에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약 400명 가까운 회원들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무엇보다도 우리 학회의 연구 활동입니다만, 학술논문을 발표할 수 있고 연구할 기회를 제공하고 그걸 모아서 또 학회지로 발행해서 우리 연구자뿐만 아니고 일반 대중들한테도 정보를 전하는 것이 학회의 큰 역할이자 임무 중 하나라고 한다면, 《한일관계사연구》가 1993년부터 창간호가 시작되는데, 올해로써 78집이 발행됩니다. 현재 76집까지는 이미 발행이 됐고 올해 8월에 77집이 발간되겠습니다. 그리고 10월에 30주년 행사 이후에 78집이 특집호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 4~5년 동안 우리가 학회지를 발행하면서 중점을 뒀던 것이 각종 주제의 특집호를 일반 논문뿐만 아니고 특집호를 내는 데 중점을 뒀어서 다음 화면에서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다양한 주제의 기획논문들을 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학회지의 발행이 처음에는 연간 2회 발행으로 시작해서 3회로 중간이 됐고, 2018년부터는 4회 발행으로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4회를 발행하면서 편집의 시대별, 주제별 전문화를 위해서요. 편집 및 연구 이사들의 구성을 대폭적으로 늘렸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진 평가와도 크게 관련이 됩니다만, 비회원 혹은 일반 사람들도 언제든지 학회에 접근해서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학회의 공유 자산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논문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점에 큰 방점을 두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학회 홈페이지입니다. 오래전에 동아대 신동규 교수님이 만든 학회 홈페이지를 바꾸어, 2021년에 완전 전면 개편을 했습니다. 보시는 분들이 아주 신선하게 느끼셨을 건데 가장 큰 변화는 우선 회원 가입, 지금 화면상으로 작아서 잘 안 보입니다마는 누구라도 쉽게 회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오른쪽 그림에 4개 중에 가운데 하나를 클릭하면 회원 가입을 쉽게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돋보기 모양은 누구라도 쉽게 아이디 없이 일반 사람들도 논문 제목만

넣으면 논문을 검색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 게 특징입니다. 무엇보다도 과거에는 논문 투고를 어디에 가서 투고해야 하는지 걱정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바로 이쪽 화면을 누르면 곧바로 논문 투고가 쉽게 될 수 있게 됐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재정하고 관련되는 문제입니다만, 입회할 때, 회비를 어디다 내야 하는지 어떤 계좌를 써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바로 한눈에 함께 계좌를 볼 수 있도록 개편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일 밑에 우리 학회하고 관련되는 인접 학회 그다음에 관련되는 국사편찬위원회랄지 아니면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관련된 기관들의 사이트를 링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최근 개편된 홈페이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홈페이지는 현재 DBpia에서 관리합니다만, 이제 일반인들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그밖에 KCI나 Riss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 학회지의 논문을 마음껏 무료로 조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가 구축돼 있어서 일반 대중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부터 최근 4~5년 동안, 학회지 4회 발행 이후의 논문 게재 편수입니다. 손 교수님 정리해주신 부분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창간호에서부터 76집까지 평균적으로 학회지 한호수마다 8편의 논문이 기본적으로 실리고 있어서 타 학회지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많은 논문을 싣고 있다고 하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2022년 8월 호(77집)를 준비 중입니다만 8월 호에도 8편이 지금 교정 중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1월에 발행하는 30주년 기념 특집호는 상당히 중량감 있는 아주 볼륨 있는 학술지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논문입니다만, 그때그때 트렌드, 이슈 혹은 사회적인 요청에 응할 수 있는 주제의 특집호를 싣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62집 같은 경우는 한일관계사학회 25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고대에서 근현대까지의 회고와 전망’으로 25주년을 되돌아보는 학술대회가 있었습니다만 그 결과물들을 두 차례에 걸쳐서 기획했고요. 그 이하는 각 시대 메이지 유신이라든지, 고대 한일관계라든지, 그다음에 근세한일관계의 허와 실, 그리고 우리 한일관계의 갈등과 해소, 문제점과 방안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한 특집들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일본의 역사 교육의 현주소를 알아보는 의미에서 일본의 역사 교과서를 분석하는 내용 등의 기획논문을 게재해 왔습니다.

다음에는 임원진들입니다. 지금 화면으로 정리한 것은 회장님, 부회장님 그다음에 총무님은 여기에 없고, 주로 월례 발표회, 국내 학술대회 그리고 편집하고 관련되는 편집위원, 편집이사 관련 혹은 발표에 관련되는 연구이사 분들의 표만 제시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대 중세 그다음에 근세 근현대 가능하면 많은 전문 인력들을 편집 위원으로 모시고 있고요. 다양하게 편집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다만 인적 구성상으로는 중세 부분에 약간 부족함이 있습니다만 필요가 있다면 중세의 전문가 이미 고인이 되신 김보한 선생님도 그동안 애쓰셨는데 그 빈자리를 다시 채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로는 밸런스 있게 편집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학술지 발간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편집 이사 뿐만 아니라 연구이사 같은 경우는 학기마다 네 번 열리는 월례 발표회 혹은 국내외 학술대회 준비에 큰 역할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정보 이사이신 김영미 선생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셨습시다만 김영미 선생님이 우리 학술지를 발간하고 최종적으로는 학진에 업로드가 되어야 하는데 그 일을 지금 꾸준히 잘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손 교수님이 자료 정리하신 거 보니까 37~8회에 걸친 국내 학술대회가 있었는데, 최근 5년 동안의 주요한 학술대회의 주제들입니다. 보시면 시대적으로 고대에서 근현대까지를 망라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해양 바다, 그리고 또 올 10월에는 여성 처음으로 시도하는 여성과 젠더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삼았고, 그리고 그 이전에는 주로 근세 주제가 중심이 돼 있었구요. 여기에 근대 한일관계를 전망해 보는 근대 메이지유신, 고대의 도래인 이런 키워드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국내 학술대회를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 최근에 5년 정도의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까 2015년예요. 나중에 남상호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시겠지만 뜻하지 않게 2015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 기념 국제학술행사를 우리 학회 사상 가장 큰 인원수로나 경제적 재원적인 측면에서도 가장 큰 학술대회가 있었습니다. 다만 자료상에는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은 앞으로의 우리 학회의 과제입니다만 1번, 2번, 3번은 지금 학진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회지 학술지 평가입니다. 학회에서도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고요,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작권 문제와 표절, 논문 표절 심의 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해야겠습니다. 사실 학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학회의 기본 마인드라고 생각되지만 1, 2, 3번은 그와 관련된 내용이고 4번, 5번은 손승철 교수님하고 연민수 선생님 계시지만 우리 학회 전문가들뿐만 아니고 일반 사람들에게도 학회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사회적인 일종의 기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우리 학회가 지속해서 지금까지의 발전상을 계속 유지하려면 6번, 7번, 8번 그래서 많은 회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특히 최근에 다들 고민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신진 연구자들과 후속 연구자들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한일관계사뿐만 아니고 일본사나 중국사 혹은 인접 고고학이나 인접 경제사도 좋습니다마는 인접 학문 분야하고도 조인하면서도 넓혀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9번은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야 사업도 독자적인 사업도 하고 어떤 외부 기관의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국내 혹은 국제학술대회 같은 이런 대규모 행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학회 재정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재정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역대 회장님들하고 총무님들이 아주 잘 운영해 주셔서 표에 보시면 우리 학회 부자구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일반 적금 〇〇〇만 원이 은행에 들어 있고요. 〇〇〇〇만 원 이외에 일반 통장에 〇〇〇〇만 원 가까운 돈이 있어서 〇〇〇〇원 정도입니다. 이제 〇〇〇〇원 부자 학회인데, 물론 〇〇〇〇이

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 3부 간담회에서도 많은 말씀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4번하고 6번에 초대 회장님이신 우리 하우봉 교수님 그다음에 2대, 7대 회장님이신 우리 손승철 교수님이 30년 전부터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아주 꾸준하게 학회를 위해서 크게 애쓰신 결과가 바로 4번, 6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잠깐 박수 한번 주실까요. 지금 결과만 말씀드리고 그래서 두 분이 크게 힘써주셨던 덕분에 올해 30주년 10월 15일 예정되어 있는 30주년 행사를 아주 성대하게 아주 알차게 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5번의 연구 재단 지원비입니다만 최근까지는 500만 원 정도 학술지 발행 지원금을 받아왔다가 재작년, 작년에는 800만 원 정도를 받았고, 올해도 한 800만 원 정도 지금 신청을 했는데 아직 그 결과를 받지 못했습니다만 크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런 정도로 재정 상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마지막 화면은 우리 학회 회원들의 기본 마인드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학회를 꾸리고 있는 현직 임원단들의 마음가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이 말씀을 듣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학회의 이상은 학진의 평가 결과로써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예컨대 김동명 회장님 재임 시절에 학진 평가를 90점을 받아서 3년 동안 등재지 유지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해프닝이 있어가지고 96~7점 받아야 하는데 실수를 해서 90점을 받았고, 아무튼 이번 3년이 지나서 김문자 회장님 때에 다시 5년 평가를 받았습시다. 그런데 그 5년 평가에는 99점 차마 심사위원들도 100점은 줄 수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99점 평가를 받아서 당분간 5년 동안은 학진이 인정하는 학회로 자리매김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동명 회장님이 4회 발행을 밀고 나가셔가지고 우리 최종적인 목표는 이제 99점의 우수학술지, 지금은 등재지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만 우수학술지가 바로 눈앞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우리 학회의 임원진들이 이제 기본 마인드로 해나가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사회를 맡아주신 우리 장순순 부회장이 이 말씀을 대표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의 학회 현황 및 현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순 : 앞에서 나행주 선생님께서 현황보고를 해주셨는데 정말 고속 성장이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성과를 거두는 데는 여기에 참석해 주신 여러 회장님들의 노고가 큰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아울러서 또 그 옆의 임원진들도 그 수고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 학회가 나아갈 방향을 한번 제가 읽으면서 2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회는 한일 양국의 평화와 공존의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바람직한 한일관계의 역사적 상황 정립이라는 학회설립의 취지에 적합한 연구 결과를 다양한 계층의 연구자와 일반인에게 전함으로써 학문의 대중화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제2부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잠시 5분 정도 휴식을 하고 제3부에서는 저희가 이제 ‘학회의 과거를 돌아보다’라고 하는 주제와 ‘학회의 미래를 바라보다’라고 하는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여러 회장님들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부〉 역대회장 간담회

손승철 :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코로나도 원인이 되겠습니다만 세대교체가 일어나면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초창기 회장님들은 거의 월례발표회도 참석을 잘 못하시기 때문에 주최 측에서 일부러 이런 기회를 마련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자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30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짧지도 않은데 그렇다고 긴 세월도 아닌데 초창기를 회고해 보려고 하니까 자료들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30주년 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역사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지나간 과거를 팩트면에서라도 일단 좀 정리해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나.

또 인터넷 시대가 되니까 홈페이지를 쪽 처음에는 관리해왔는데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부터 옛날 자료들이 어디 갔는지 이젠 흔적도 없어요. 저도 뭐 다들 그러시겠습니다만 노트라든지 그런 수첩이라든지 메모라든지 이제 다 없어지고. 그래서 오늘 이제 회고와 전망인데, 회고 부분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좀 정리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쪽 편년체식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30년을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면서 다음 세대들이 뭐 어떤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 같은 거 이런 거를 최소한으로 이렇게 메모 형식이라도 남겨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0주년 행사하면서 학술적인 측면은 다 정리가 되겠지만, 학회 30년 역사도 정리해서 학회지에 부록으로라도 남겨 놓자. 이렇게 집행부하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을 하면서 지나온 걸 어떻게 회고할 것이며, 앞으로 어떠한 그 점들을 차세대 운영진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인가, 그런 문제들을 제안하는 정도에서 이야기를 모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몇 가지 목차를 정리해서 제시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그렇게 진행해가면서 언제든지 생각 있으시면 그때 그때 바로 말씀해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다 녹취를 해가지고 항목별로 정리를 해서 부록으로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회의 창립 과정인데 자료집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25주년 우리가 할 때 학회의 창립에 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소개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어디까지나 제가 주관적으로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시면서 객관적인 사실에 오류가 있다든지 아니면 첨가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메모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회 창립과정은 이훈선생님도 메모를 해주셨는데, 1991년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대마도 종가문서 목록집이라는 것을 만들었잖아요? 그때 이훈선생님께서 그 사업을 주관하셨는데 그것을 목록집을 냈고, 그걸 가지고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한일 양국에서 전시회를 했습니다. 그때가 1992년 초인데, 동경에서 학술대회를 겸해서 전시회를 했는데, 그때 국사편찬위원회 이원순위원장님과 신재홍부장, 하우봉선생님, 정성일선생님이 같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동경대학 사료편찬소 객원연구원으로 유학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 제 숙소인 메구로의 동경대학 인터네셔널 롯지에서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학회를 하나 만들어야하지 않겠냐.’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귀국한 후, 하우봉 선생님과 제가 준비를 해가지고 학회를 발족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5월 달인가 그때 처음 모였고, 7월 달에 배재대학에서 그때 강창희선생이 배재대 교수로 있었는데, 그때 17명의 명단은 나뉘드린 페이퍼에 제가 제시했습니다만, 17명이 모여서 학회 발기대회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9월 달에 당시에는 서울역에 앞에 대우빌딩에서 학회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회도 그때 9월 5일인가 제1회 월례발표회를 하면서 정식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년 후에 원래 초대회장은 하우봉 선생님이 1년만 하고서 구주대학으로 연구교수를 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baton을 이었고, 그 이듬해에 학회지를 처음 발간하면서 학회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17명이 시작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거 보니까 뭐 300명이 넘는다고요? 360명이라니 대단한 숫자네요.(웃음)

그런데 그중에서 개인회원이, 기관회원이 얼마나 됩니까?

나행주 : 개인회원은 한 200명이 넘습니다.

손승철 : 그 가운데 회비 내는 회원은 얼마나 되나요?

나행주 : 다 유료입니다.

손승철 : 이야! 그럼 학회 수입이 만만치 않겠네요

장순순 : 평생회원이 많잖아요.

손승철 : 요새 다른 학회들 보면 평생회원은 평생 해준다고 해서 평생회비를 냈는데, 한 10년 쯤 지나니까 재정이 고갈됐는지 또 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 학회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대단합니다. 현재 회원이 대략 380 여명이고, 거의 대부분이 유료회원이라고 하는 것 보면 아마 이런 학회 없을 거 같아요. 한국에선.... 대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다음에 93년 10월부터 한일관계사연구 학회지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다들 이제 공감하고 계시겠지만, 결국 연구자나 학회도 똑같이, 연구자도 논문이랑 저서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역시 학회도 출판물이나 학회지나 그런 거 가지고 결국 인정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학회는 그런 면에서는 조금 전 99점이라고 하던데 100점 줘도 충분히 자격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회지를 처음에는 1993년부터 발행했는데 현음사에서 시작했어요. 현음사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마포에 있었고, 처음에 연 2회 냈고, 그 다음 12집에서부터는 국학자료원에서 내다가, 그 다음에 논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출판사가 옮겼냐면 출판사들이 처음에 학회

지를 그냥 무료로 내줬는데, 이게 다 돈이 되니까 출판비를 자꾸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경인에 얘기해가지고 경인에서 2005년부터 시작했고, 그때부터 한 10년간 경인에서 무료로 해줬습니다. 그러다 편집부장이었던 신학대씨가 나와서 온샘 출판사를 차렸죠. 그래서 온샘에서 하게 되었고, 지금은 연 4회 내고 있죠. 그런데 한번 낼 때 출판비는 얼마나 되나요?

나행주 : 학진에서 받는 800만원 정도가 고스란히 출판비로 쓰입니다.

손승철 : 800만원 정도 한 번에 200만원 정도. 그래서 사실은 그거 큰돈이죠. 초창기 출판사들은 무료로 해줬는데. 그게 자꾸 부담스러우니까 돈을 달라고 그랬고. 그래서 이제 경인학술총서가 시작된 것도 무료로 내주되, 단행본은 내가 어떻게든지 원고를 모아 오겠다. 그래서 단행본을 출간해서 학회지 출판비를 보충하겠다. 이렇게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경인학술총서도 200부밖에 안 찍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즈음은 가끔 앓는 소리를 하는데, 그래도 단행본이라는 게 축적이 되면 그 자체가 일종의 재산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단행본을 100권까지 내겠다고 약속했고, 100권까지 내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학회 회장들은 임기가 2년입니다. 2년인데, 거의 아마 한 차례만 하시고 그 다음에 바통터치를 계속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회는 시작부터도 순수한 연구자. 한일관계사 또는 일본사, 한일관계와 관련된 연구자들 같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학회회원들도 거의 전문적으로 또 회장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조금 그 뭐랄까 보수적인 그런 학회들이 갖고있는 단점들이 별로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학회는. 그래서 항상 새로운 수혈에 의해서 새로운 분위기, 흐름 이런 것들이 연속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해서 현재 16대 회장님까지 나와 있고, 아까 말했지만 99집, 100집짜리 학회가 될 수 있는 것도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들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또 회장님을 그만두시더라도 학회에 대한 애착 뭐 이런 것들이 우리 학회를 현재처럼 자리매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준 어떤 저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제일 자랑스러운 것은 학회지를 지금 30년 동안 76집. 이번에 77집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대충 한번 이렇게 시대별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76집까지가 614편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평균 8편씩 되는 것이예요. 대단한 거죠, 그리고 시대별로 나눠보니까 역시 조선시대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조선 전기, 후기. 그리고 이제 개항기, 일제강점기, 현대 쪽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편입니다. 그만큼 한일관계 현안들에 대한 관심이 연구영역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분야별 일람은 제가 임의로 나눠 본건데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그 결과 역시 관계사인지 모르지만 외교 분야가 제일 많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마 정밀 분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합니다. 그다음에 학술행사, 그다음에 국내학술회의, 그다음에 국제학술

회의 이런 것을 열거했습니다만, 그동안 10주년, 20주년 때에는 일본 학자들하고 연합으로 같이 했어요. 아시겠습니까만 동경에 있는 그 대외관계사연구회 팀들하고 그다음에 조선왕조실록 읽는 팀들과 구주대학에 있는 사에키교수의 세종실록읽기모임 팀들하고 같이 했어요. 그래서 단행본도 냈습니다.

그런데 30주년은 좀 어렵게 된 거 같아요. 우선 코로나 상황이 있고, 경험이 있으시겠습니까만 국제학술회의를 하려면 경비가 문제인데, 재원 마련이 이게 쉽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그동안 사실은 한일문화교류기금에서 많이 지원을 받았거든요? 돈으로 따지면 아마 5천 만원 이상 지원을 받았을 거예요. 아까 여기서는 2021년, 22년 통계만 나왔는데 매년 기본적으로 300만원씩은 받았거든요? 거의 한 15년 이상 받았어요. 그럼 그거만 따져도 한 4천~5천 되고, 그다음에 국제 학술회의를 여러 차례 거기서 지원을 받아서 했어요. 그거만 해도 한 10번은 되거든요? 그럼 아마 1억 이상 지원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쪽은 어떻게든지 한다고 그러면 해보려고 하는데, 일본 쪽은 굉장히 소극적이다라고요. 일본과학재단이나 그런 케이스가 안 되면 그렇게 개인들의 노력에 의해서 그렇게 돈을 만드는 것은 쉽지가 않은가 봐요.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명색이 어쨌거나 한일관계사학회이니만큼 사실은 학자 교류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객관성이 담보되고 특히 한일관계사는 객관성이 더 담보가 되어야 하니까. 아쉬움이 좀 남아요. 그렇다고 그냥 30년 동안 모아놓은 1억 정도 되는 돈을 확 털어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좀 안타까움이 조금 있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지난 상황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젠 한 분씩 말씀을 좀 이렇게 부탁하려고 그래요.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메모했다가 총정리를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임원진들이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좀 사소한 거라도 그게 다 나중에 시간이 가면 그게 하나의 사료가 되니까 기억나는데로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지나온 것 가운데서 조금 좀 말씀해주시게 있으면 말씀을 먼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난번에 제가 자료, 1차 자료를 보냈는데, 이훈 선생님께서 시작할 때의 과정하고 또 제언을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을 먼저 듣기로 하지요.

이훈 : 먼저 회고와 전망 부분은 손승철 회장님이 이제 쪽 짚어주신 것이랑 거의 똑같은 기억이에요, 거의 빠짐없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굉장히 매사에 소극적인 사람이라서 학회 회원, 창립 이후에 쪽 회원으로만 있었고, 10대 때 처음으로 학회 일을 맡아봤습니다. 언제나 월례발표회 공지가 뜨면 거기 수동적으로 이렇게 가서 참가하고 하다가 10회 때, 학회 일을 맡고 보니까 학회 일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매번 월례발표회, 학술회의, 그다음에 뭐죠 학회지 관리,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일이었어요. 저희 때에도 학술평가가 돌아오는 해였기 때문에 총무를 맡아보셨던 현명철 선생님이라든가 장순순 선생님 고생 덕분에 유지가 됐었는데, 그런 일도 제가 동북아 역사재단에 근무해보니까 이런저런 일을 모두 합하면, 이제 학회 일을 한다는 게 어느 직장에 한 연봉 몇 천만 원짜리 연봉을 받아도 되는 그 정도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재정 상황이 궁핍했는데, 좀 이제 상징적이지만 조

금이라도 수당을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때부터 들었었는데, 지금 1억이 좀 안돼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줌. 그니까 이제 총무간사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른 현직 위원 일도 많지만. 이제 점점 재정상황이 지금 현재 확보는 되어있으니, 계속 유지되는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징적이기는 하지만 고려를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도 손승철 선생님께서 할 말이 있으면 보내보라고 해서 쪽 이제 살펴보다보니까 저희가 이제 30년, 또 학회 일을 하다 어느 거나 다 마찬가지로였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이런 이제 물리적인 뭐 월례발표회라던가 이런거 저런거 하다보면 학회에 대해서 ‘이 학회를 어떻게, 학술회의 내용이나 이런 걸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 깊이 그렇게 생각할 여유가 없었던 거 같아요. 그냥 이제 지원받아서 학술회의 치루고 성과물 내고, 이제 주로 이제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학술회의 쪽 제목을 보더라도 교과서 문제가 한일관계에서 터졌다던가, 긴급한 문제가 터지면 거기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 잘 해왔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에 급급한 나머지 한일관계사학회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뤄야할 주제나 담론 이런 것들은 제목에 비해 내용이 이렇게 충실했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런데 작년 12월 말에 김보한 교수님 추모 기획학술회의 사회를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제목이 참 좋았어요. 예를 들어서 ‘해양해역을 통해 본 한일관계 -갈등과 공생의 동아시아’였습니다. 해양 해역이라든지 갈등, 공생, 동아시아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한일관계사학회에서 3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쪽 이렇게 제일 다루어야할 깊이 생각해봐야 될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회를 보고 우리 학회가 30년이나 되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이렇게 불러야 나오는 거예요. 불러야 나오고, 이제 연구자들 다 바뀌었더라고요. 이름도 모르고 봐도 모르겠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제목을 이렇게 쓰긴 하는데, 그 내용, 발표 내용하고 이런 학회 그 주제하고 뭔가 연결이 안 된다. 그래서 그동안 한일관계사학회에서 추구해왔던 이런 쟁점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공허하게 그냥 단어로만 이렇게 하고 또 그걸 얘기했던 사람들도 이제 다 바뀌고 뭐 이러다보니까, 이게 그냥 버려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그때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술회의나 뭐 이런 걸 기획할 때 어쨌든 학회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뼈대가 되는 인식이나 용어, 관점 이런 것들을 둘러싼 워크샵. 뭐 이런 것들이 좀 사전에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아까 손승철 회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제 한일관계사학회가 우리는 이제 학회도 있고 학회지도 있어요. 근데 일본은 대외관계사 연구팀이라고는 있지만 거기에 딸린 학회지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일관계라고 하는 걸 연구 분야로서 이렇게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끌고 가기에 좋은 환경인데, 일본 연구자들은 이제 워크샵 팀이 있어가지고 논쟁은 활발한 거 같은데. 제가 일본사학 연구나 이런 개별적으로 발표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워크샵을 통해서 이제 그런 좀 ‘어떤 지향점이 있는 연구논문들이 실렸으면 좋겠다’ 하는 것 하나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랑 연결되는 건데, 예전에는 한일관계사학회에서 이제 공동학술회의를 한다든지 하면 사람을 불러와야 됐잖아요. 불러와야 됐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근데 지금은 오히려 코로나로 온라인으로 하면 연구자 불러가지고 이제 온라인상에서 토론이 활

발해질 수 있는데, 이게 그런 것들을 안 하고 하면은. 제가, 이제 저도 학회 일을 보면서 실제로 우리 경험한 바에 따르면 연구자들 간의 이런 교류 없이 일본에 일본연구자나 한국연구자가 일방적으로 연구 결과를 발표해버리게 되면 좀 오해가 많이 생길 수 있겠더라고요. 관계사인데 기왕에 코로나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온라인 이걸 좀 활발하게 활용을 해서 연구자들을 불러가지고 토론을 하면은 어떨까합니다. 앞으로는 온라인 회의를 좀 활발하게 해서 교류가 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손승철 : 아 제가 이훈선생님께 처음 마이크를 드린 이유는, 지난번에 제가 간담회에 관한 메일을 보냈더니, 초창기 학회가 시작되는 배경에 대해서 그때 국사편찬위원회에 계셨으니까 그때 상황과 지금 얘기했던 기획 워크숍 또는 온라인회의 등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청했던 겁니다. 사실은 여기 초대 회장님이 계시지만 초창기부터 제일 많이 관여를 했고, 또 제일 아마 하실 말씀이 많을 거 같아요. 초창기에는 정성일 선생님이나 하우봉 선생님이 많이 관여했기 때문에... , 하 선생님 좀 말씀해 주시죠.

하우봉 : 학회 창립과정에서 약간 보완이라고 할까요? 기억이 약간씩 다른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 이게 옛날에 정성일 선생님께서 어느 책에서 초창기 창립과정에 대해서 정리하신 것을 본거 같고, 저도 정년퇴직할 무렵에 고별강연 비슷하게 하면서 앞부분에 좀 정리해본 적이 있는데.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대마도 증가문서 목록집 발간이 계기가 됐다는 게 제 기억에는 또 없었던 부분이었어요. 오늘 확인이 되었고요. 제 기억으로는 그것보다 조금 더 앞서가지고 그 한일관계사료 운동회라는 것이 대우학술재단에서 지원받아 했는데, 제 기억으로 1990년이에요. 그거를 한 1년 동안 대우재단에서 쪽 하고, 91년도에 이것이 한일관계사 콜로키움으로 이름을 좀 바꿔가지고 또 지원이 됐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제 기억으로는 손 선생님 숙소에 가서 그 통신사 심포지엄도 하고, 도쿄에서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이원순 선생님하고 이래가지고 모였던 연도가 저는 91년도로 되어있는데, 요거는 오늘 보니까 92년도를 착각했더라고요.

손승철 : 그게 뭐예요 지금? 지금 보시는거.

하우봉 : 아! 이거는, 이거는 제가 그때 고별강연 한 거를 그 이듬해, 그다음 호에 학회지에 이런 식으로 실었어요. 그래서 그 해 92년도 봄에 손선생님 숙소에서 만나가지고 그 래가지고 그렇게 논의를 하고, 92년도 7월달에 우리 한일관계사학 연구회가 창립된 거. 거기까지는 이제 서로 맞는 것 같구요. 그다음에 뭐 하나 좀 보완할 것은 첫째에 제가 회장할 때 작업으로 ‘한일관계사논저목록’이라는 것이 발간이 됐었어요. 그것도 92년도인줄 알았더니 오늘 보니까 93년도 8월이더라고요. 이것도 역시 현음사에서 목록집이 일종의 준비 작업처럼 발간된 게 있고, 그다음에 이듬해 한일관계사연구 창간호가 93년도 10월 무렵인가 발간이 됐고. 그 다음 이거는 아주 개인적인 거지만, 제가 1년 하다가 그만두고 일본에

갔을 때는 구주대가 아니라 동경대로 갔었어요. 90년대는 제가 동경대에 갔었습니다.

이훈 : 그 시대적인 분위기라고하면, 그때 대마도 종가문서가 갑자기 부각되게 된 것도 작업은 계속하고 있었지만 노태우대통령이 관심이 많았죠. 그런 것은 학회와 관련이 없지만 노태우대통령이 한일관계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아메노모리 호슈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해서 거꾸로 국사편찬위원회에 문의가 왔었어요. 혹시 국편에서 가르쳐준거나. 그래서 그건 아니었다고 하네요.

하우봉 : 그래가지고 우리가 청와대 가서 밥도 먹었어요. 노태우대통령하고 악수도 하고 그랬습니다.

남상호 : 그런 얘기 좋네요. 이게 역사니까. 시대적 배경이라던지.

정성일 : 방금 말씀 나온 부분이어서. 1페이지에서 두 번째 문단 있죠. 개인적으로 제가 91년 10월에 첫 입사를 합니다. 그때 대마도 종가문서에 자료 전시회를 일본에서 하는데 제가 국사편찬위원회에 가자마자 사수로 우리 이훈선생님, 최문영 홍보실장님, 이원순 선생님 같이 했는데, 92년 2월 초반으로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원순 선생님 그 당시엔 위원장이 아니었고, 당시는 박영석 위원장님이고요. 그 당시는 이제 이원순 선생님은 서울대 명예교수로 기억이 나거든요.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으로 계셨고, 그 후임으로 이원순 위원장님이 계셨습니다. 92년 2월쯤 메구로 현장에 오셨을 때는 위원장 이전이셨고, 그때 선생님께서 많이 지도해주셨습시다만 직접 위원회도 준비하시고. 그게 인연이 되어서. 저도 이제 글로만 접하고 그랬던 분들인데, 그때 직접 뵈고 많은 교훈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손승철 :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아니 그래서 그때 얘기를 어디다 썼어요? 선생님도?

하우봉 : 어느 책에선가 간략하게 정리된 걸 본 것 같은데..

장순순 : 그동안 우리 학회가 월례 발표를 꾸준히 해 왔지만, 또 하나 학회 내부에서 그러니까 계속 윤독회를 계속 해왔거든요. 지금은 좀 중단이 코로나 때문에 됐고, 지금도 하다가 작년에 좀 쉬었는데. 기본적으로 선생님께서 『교린제성』 이것도 했었지만 저희가 모여서 그 이후에 민덕기 선생님이랑 정성일선생님이랑 전북대 팀으로 해가지고 청주대학교에 가서 『통역수작』 도 좀 읽었구요.

손승철 : 이런 자료를 좀 정리해주시면 좋겠네요.

장순순 : 예. 『동래부사례』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다음에 계속 꾸준히 『매일기』 를

읽었어요. 구즈시지 공부도 했고, 학회 회원 중에 몇 명이서 최근까지 하고 있는 것이 현명철선생님이랑 저 이렇게 해서 그런 공부하는 모임이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손승철 : 그것 좀 장선생님께서 정리를 해서 나중에 주세요.

장순순 : 네 확인을 해볼게요.

손승철 : 하는 데까지, 그래도 학회 이름으로 한 건 아니지만, 어쨌건 학회 구성원들의 모임이었던 만큼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장순순 : 예예, 그래서 저희가 한동안에 후보에 그것들을 계속 보고를 해왔어요.

손승철 : 아 그래요? 그걸 좀 장선생님이 정리해주세요.

현명철 : 창립과정에서 사료 윤독회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90년 즈음에. 그때는 어떤 사료를 가지고 하셨어요?

하우봉 : 『통신사등록』.

손승철 : 『통신사등록』을 했고 『교린제성』을 했고,

하우봉 : 『교린제성』은

손승철 : 그건 그다음에 했고.

하우봉 : 『통신사등록』을 좀 한 2년 정도를 했습니다.

손승철 : 그때 그거를... 그리고 그건 대우재단에서 아마 돈을 받았나요? 얼마씩.

하우봉 : 계속 받았죠. 그게 정말 싼 돈인데 그 당시엔 대우재단에서 진짜 액수 크게 안 들이고 연구자들에게 괜히 큰 혜택을 베푸는 식으로. 심지어는 그게 김우중의 대권 프로젝트 중에 일환이었다는 말도 있고 그랬었어요. 우리가 그때 한 달에 한 20만원 받았거든요? 지원어요. 그 20만원 받으면 저녁에 회식하고, 하여튼 회식은 충분히 됐어요. 저녁 식사할 만큼은 충분히 됐어요.

현명철 :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도 저도 유학에서 막 돌아오거나, 92년인데, 『교린

제성』 운동모임을 대우재단에서 하다가 과천에 가서도 하고 그랬어요.

손승철 : 그랬어요. 대우재단에서 끊겼잖아요.

정성일 : 『교린제성』 다음입니다. 『교린제성』 다음에.

손승철 : 대우재단에서 그런 모임을 당시에 많이 했어요.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학회에 관심을 기울여서 지원을 했던 것이죠.

하우봉 : 그 액수로 보면 얼마 액수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손승철 : 크진 않은데도, 그러니깐 그 당시에 기업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었잖아요. 사실은. 그걸 대우에서 민음사하고 같이 처음 시작한 거지요.

좋습니다. 이제 그 학회 창립과정, 그다음에 학회지 발간, 그다음에 학술대회, 월례발표회, 국제학술회의 정도까지는 대강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한일관계사학회 학술상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이훈 : 2019년까지..

하우봉 : 저는 계속 된 줄 알았더니만, 중단이 되었네요?

이승민 : 제가 정확한 건 아닌데, 알아본 바로 현재까지 5회까지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6회 학술상에 대한 논의가 있었었는데, 그게 시상이 안 됐다고 선정이 안됐다고

나행주 : 대상자를 못 찾았어요.

이승민 : 그 이후로는 어쨌든 현재까지는 아직....

연민수 : 그 선정 위원회가 별도로 조직된 건 없죠?

이승민 : 예.

나행주 : 그때 임원진들이 이제 예....

손승철 : 저술상은 얼마예요?

손승철 : 액수가, 액수가 이게 정해진 액수가 아니야? ○○만원? 아니 받은 사람들 알려 아니야.

나행주 : 논문상은 ○○만원, 논문상은 ○○만원, 논문은 ○○만원.

손승철 : 논문 ○○만원?

나행주 : 네.

장순순 : 저술은?

나행주 : 저술 ○○만원 같은데..

하우봉 : 그니까 맨 처음에 우리 회장단들끼리 한 ○○○만원씩 각출해서 모은 것도 있고 하니까 돈이 부족할 거 같진 않은데. 왜냐면 뭐 학술상 액수를 워낙 적게 줘가지고. 그때 하여튼 중단이, 중단이 안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계속...

현명철 : 제 때는,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이에요. 모여가지고서 갑론을박하면서 평가를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는 아주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대에는 그냥 포기하자. 그리고 특별하게 좋은 게 보이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저희 때는 못했습니다.

김동명 : 그래서 제 경험, 제 기억으로는 지금 연도가 조금 여기 좀 잘못 나와 있고, 그 때 그러니까 아마 제가 맡았을 때 3회부터 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그때 현실적인 문제가 어떤 거였나 하면은 이 심사를 하는 게 실질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분야도 우리는 너무 다양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시기별로다가 다 해가지고 거기에 또 심사위원들을 한 세 명씩인가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게 막 수십 명이 되는 것이예요. 그래서 잘 진행이 안 돼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장 할 때 제가 제안을 했던 것은 그러지 말고, 어느 정도 우리가 학회에서 참여하는 것과 그 다음에 또 평판 같은 걸 아니까 집행부에서 그냥 하는 게 저는 더 효율적이다. 이런 제안을 해봤고, 저희도 아마 이렇게 약식으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그랬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다 회장하신 분들이나 이런 저명한 분들이 전부 수상을 하는데 그게 맞는 부분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거는 조금.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그것보다는 신진 연구자들이나 아니며는 이런 말씀하면 좀 저저 하지만 약간 어렵게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전임이 아니고 그러셔가지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분들 이런 걸 중심으로 이렇게 격려하는 쪽으로 좀 바꾸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저희 때 그런 방향을 잡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코로나 오고 막 이러면서 중단되었는데, 앞으로는 학술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대가한테 주는 게 아니라 좀 신진이나 아니면 또 어려운 분야에서 고군분투하는 분들에게 격려하라는 의미로 바꾸는 게 어떨까합니다. 지금 돈도 많이 있기 때문에 금액도 약간 좀 상향한다든지 해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격려하는 쪽으로 바꾸는 게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승철 : 여기서 우리가 이거 결정할 일은 아니지만 지금 여러 가지로 의견을 제시하면, 앞으로 집행부에서 좀 숙고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발전적으로 해나갈지 고민을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울러서 이것과 연관 지어서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허지은씨하고 누구하고 세키 슈이치의 『일본 근세사』 인가 그걸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해가지고 출판을 하려고 했는데, 그 책이 요시카와 고분켄(吉川弘文館)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출판 못한다, 로열티를 지불해야 된다. 그래서 물어보니 요시카와 고분켄에서 번역 출판에 관한 무슨 계약서 보내왔어요. 그 내용은 기본 부수 1,000부를 찍어야 하고, 그다음에 인세의 몇 프로해서 한 ○○○만 원 이상 돈이 들어간다고 해요. 근데 그 출판사에서는 부담이 어렵다고 합니다. 꼭 책을 내겠으면 책을 더 찍어서 번역자들이 사주든지 아니면 돈을 내든지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야기가 중단돼 버렸는데 예상 같아서는 학술상 같은 것도 준다면 번역 지원 제도 같은 거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적을 번역하는 경우에는 뭐 저작권에 50%를 대준다든지 100%를 대준다든지 이런 것도 아울러서 좀 검토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문자 :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학술상 문제도 이제 저희가 2022년 12월까지 제가 임기이기 때문에, 30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그때 맞춰서 해야 할까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조금 더 논의 할 거고요. 지금 번역 지원 사업도 말씀하셨는데, 또 하나 제가 하다 보니까 우리 학회 회원들이 사실은 좀 뭐랄까 정체되어 있다고 할까. 요즘은 월례발표회를 하면 오시는 분만 오고 새로운 신진들도 없고, 또 대학생들 중에서 일본어나 한일관계사 전공하는 사람들도 별로 많지 않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석사 논문이나 아니면 학부 논문이라도 격려하는 차원의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공개적으로 우수 논문을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좋은 의견이 좀 있으시면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지금 저희가 다 이제 그 정체되는 상황이라서 젊은 학생들의 관심, 그니까 그런 공고를 냈으로써 홍보가 되기도 하고, 또 이제 관심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승철 : 좋습니다, 이제 30주년도 되니, 학회 이벤트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학술 발표만 하고 끝낼 수는 없잖아요. 사전에 논공 행사만 좀 해도 되지 않을까요. 학술

상도 주고, 저작상도 주고, 번역 지원비도 주고 돈 있으면 좀 풀어서 한번 잔치 한번 하시지요. 그런 게 격려가 아닐까요.

하우봉 : 하시죠. 가능하면 상을 주는 건 쪽 계속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문자 : 네네.

하우봉 : 실은 그 이런 거 받으면 취직하는 데도 도움이 승진하는 데도 좋고.

나행주 : 아까 김동명 회장님 말씀이 그런 취지의 말씀이 아닌가요.

김동명 :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맞다 이거죠.

연민수 : 학술상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은데, 이것도 한번 제안인데 신진학자들 중심으로 하자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차라리 지금은 우리 학회에 젊은 연구자들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 그저 일본에서 갓 귀국한 사람이라든가, 학위를 바로 받은 사람, 이런 사람도 한참 신선미도 있고, 그리고 논문을 한참 좀 쓰기 시작하는 단계니까, 학위논문 요즘 좋은 것이 있으면 학위논문을 학술상에 하나로서 만들면 좋겠네요. 심사를 해서 괜찮다고 그러면 그 학위논문을 학술상의 후보로 하는 방법도 좋다는 거예요.

최근에 일본사학회 보면 모르는 젊은 연구자들이 많이 귀국했더라고요. 근데 한일관계를 보면 물론 이제 일본 유학 안 하고 국내에서 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 한일관계사료라는 게 뭐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일본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고, 공부하고 귀국한 사람이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신진학자들 누가 귀국을 했는지, 생면도 하고 최근에 일본의 정보도 얘기도 듣고 그런 거 좀 기회를 좀 많이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임원뿐만 아니라 주변에 아는 사람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천 좀 해서 와서 발표를 시키고 좋은 학술, 학위논문 있으면 상도 주고.

손승철 : 상금으로 유혹하자는 건가요. 하하

김동명 : 그동안 우리 원로들이 너무 많았지.

하우봉 : 학회마다 다 그래요.

연민수 : 그동안 또 몇 년 동안 모임이 없어가지고. 최근에 귀국한 사람들. 학위 받은 사람들 있으면 발표도 시키고 불러서 이렇게 조금은 권유를 해야지. 그 사람들이 발표하고 싶어도 쑥스럽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무슨 이사죠? 섭외.... 정보이사라도? 그런 사람들을 좀 여러 명 시켜가지고 그런 좀 활동을 하계끔 하면 좋지 않을까요.

김문자 : 네. 말씀하신 거 잘 염두에 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우봉 : 그거하고 연결해가지고 약간 부연 설명을 드리면, 실학학회도 보면, 거기도 진짜 고령화 현상과 노쇠화, 노쇠화라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고령화되는 것은 학회마다 거의 공통적인데. 그래서 거기서는 1년에 네 번씩 분기별로 학회 발표를 한번에 너댓 명씩 이렇게 시키는 방식으로 하는데. 그중에 한 번은 꼭 신진연구자 초청 발표를 해가지고 네 번 중에 한 번은 꼭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연민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학위 받은 친구들을 주로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친구들을 불러 발표시키면 자동적으로 회원으로 등록도 되고, 그런 확보한 수단이 되는데 특히 지금 그 면에서는, 일본에서 유학해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일본사연구회에 우리가 다 좀 놓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먼저 그런 친구들을 데려와서 발표시키면, 사실상 일본 유학하면 일본서 연구하더라도 다 보면 한일관계사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연구자들을 우리가 먼저 좀 알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접촉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손승철 : 그리고 아까 이제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학회 기금, 후원금, 기부금. 이제 여러 형태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빠진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역대 회장들이 처음에 100만 원씩인가 뭐 얼마씩 내가지고, 그렇게 한 1천만 원 만드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빠진 것 같습니다.

현명철 : 그냥 안 적었을 뿐이죠.

장순순 : 이거는 정리를, 연도를 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손승철 : 그래서 그걸 좀 어떻게 다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돈의 액수를 떠나서, 나름대로 다 정성을 표시한 건데. 그런 것도 기록에 좀 남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한일기금에도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거기 장부 조사해가지고 몇 년도부터 얼마나 우리 후원을 했는지. 그건 또 그쪽의 실적이니까.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누락 된 것들은 한번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총무님이 좀 수고스럽지만 같이 좀 정리 좀 해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학회의 기금 현황 뭐 이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보고되는 그런 기회가 있나요?

김문자 : 네. 어떤 다른 미술사학회나 이런 홈페이지를 보면은 홈페이지에 다 기록을 다 올려놓더라고요. 어디에 들어오고 맨 마지막에 기부한 거, 세금 낸 거 명세서를 찍어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려놓더라고요. 학교 홈페이지에다가 후원금 내 상황을 다 올려놓는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그 정도까지 활성화는 안 되어 있어서. 그냥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쓰면 또 기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요.

손승철 : 그리고 회계 관리의 투명성도 담보가 되니까. 어떤 형태든지 그런 것도 아마 1억 정도 되면 궁금해 하는 사람들은 많을 거예요.

나행주 : 여태까지는 그냥 2년에 한 번, 총회 때에 보고하고, 감사가 감사하고 하는 정도였어요.

현명철 : 그 5천만 원이 지금 정기에금에 들어 있나요?

김문자 : 네네.

연민수 : 요즘 몇 프로예요? 한 3프로 프로 정도가 오르는 것 같아요.

나행주 : 아까 그 자료.

연민수 : 아니 저기 그 기금을 저기 요즘에 삼성전자 굉장히 싼데 배당금이.. 따블, 따블도 될 수 있어. 기금운영하는게 뭐 은행에만 하는게 아니잖아요. 금리 높은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한 7%, 8% 줘요.

손승철 : 그러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연민수 : 아니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거 팔아먹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0년 후에는 오르지.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 기금을 그런 생각할, 수익 많이 나오는데 넣어두면, 일부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김문자 : 그렇게 하려면 또 기금운영위원회를 또 만들어서 사람들이 해야해요.

정성일 : 젊은 연구자들을 많이 확보해야 하는 이런 과제가 우리한테 있는데요. 연구를 장려하는 경제적인 지원 이것도 하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제가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저는 이제 경제학과 출신이라서 사실 일반 역사학 전공하신 분들하고 좀 다른 경험이랄까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30년 이상 한일관계사학회이지만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여전히 역사를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자료인 것 같습니다. 과거, 옛날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 자료가 지금이 자료가 아니고, 원자료는 옛날 자료거든요. 옛날 자료는 언어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언어가 아니고, 더군다나 한일관계사를 전공한 사람들은 일본 쪽 자료를 같이 봐야 됩니다. 제 개인 경험에 비춰보면 공부할 때는, 처음에는 이론이나 역사적인 연구성과, 이걸 많이 힘들어했는데, 결국에 가서는 이제 장벽에 부딪힌 것이 언어인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자료로 나타나는데, 더군다나 요즘 젊은 연구자들은 그게 디지털

화가 돼 있잖아요. 책자가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검색이 되는 거. 검색을 해서 쉽게 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야 그 주제를 공부하고 찾아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역사 자료의 디지털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국사편찬위원회라든지 여러 국가기관에서 역사 자료의 디지털화에 10년 전부터 공을 들여가지고, 지금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거기 들어가서 검색이 되면 그걸로 논문 쓰고, 거기 검색이 안 되면 일단은 관심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제약 조건이 있는데, 우리 학회에서 이제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그건 저도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마는, 작은 거 하나하나라도 쌓아가는 지난 30년 우리가 왔던 것처럼 앞으로 30년을 우리 학회가 하나하나 쌓아가는 식으로 디지털 자료화를 좀 하나씩 해 나가면 그게 30년 후가 되면 굉장한 이제, 속된 말로 권력이 되고 그게 이제 자산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차 식사 자리에서 하우봉 선생님께 말씀드려볼까 했는데, 반농담 반진담으로. 예를 들어 『변례집요』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출판 계획이 있으신가요?

하우봉 : 추가로 없습니다.

정성일 : 그래서 이제 혹시나 하면 저도 자료 검색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해놓으신 거 이후로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하시면 어떨까요.

하우봉 : 한번은 말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역사 전문가하고 우리가 민족문화추진회나 지금 고전번역원에서는 역사 연구자들이 한 번역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아주 수준이 낮다고 보는 것이예요. 예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증정교린지』 할 때도 마구 짹짹 그어놨더라고요. 『변례집요』도 막 그렇게 그어놨어요. 『증정교린지』는 그때 그 각주가 굉장히 많이 붙었었거든요. 그다음에 민족문화추진회에서 나온 번역 중에 제일 모범적인 사례다 해가지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 출판 기념 학술회의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래 가지고 우리는 그 각주를 충실하게 붙이자 이게 이제 우리의 주장인데, 번역 수준이나 그거는 자기들 기준에서 보게 되면, 하여튼 한문학과 교수 포함해 가지고 일반 교수들이 학진에서 번역 프로그램을 하는데, 민족문화추진회에서 나오는 심사위원들이 막 짹짹 바꿔버린대요. 자기들 기준에서 보게 되면 문제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일반 교수들의 번역 수준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한 불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나도 하도 짹 줄 그었길래 기분 나빠지고 더 이상 못 하겠다고 했습니다. 진짜 원고료도 얼마 되지 않고, 고생 엄청 나게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다음에 한번 논의가 왔을 때, 뭐 우리 연구자들은 초벌 번역을 너희가 해주라. 그러면 우리가 그 뒤에 우리가 전공적인 지식을 가지고, 주를 우리가 붙이겠다고 제안을 했거든요. 이야기 좀 진행되다가 위에 책임자가 바뀌는 바람에 중단되어가지고 지금까지도 중단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만약에 제안이 그렇게 오면 할 마음도 있는데 하여튼 그 이후로 그쪽에서 연락이 없어요.

정성일 :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료의 디지털화 그게 역사연구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고, 대학교는 65세, 그 법적인 연령으로 정년을 하셨지만 고령화 사회니깐 앞으로 20년, 30년. 충분히 또 선생님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신·구라고 할까요. 젊은 세대와 은퇴 혹은 정년퇴임 한 사람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충분히 있고. 그것이 역사 자료의 디지털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하나의 숙제로 과제, 30주년을 맞이한 우리 학회에서 논의를 해보면 어떨까 말씀 드렸습니다.

남상호 : 『교린제성』 이라든지 종가문서 디지털화 안 돼 있죠?

장순순 : 『교린제성』 은 안 되어 있죠.

남상호 : 일본 쪽에는 돼있나요?

정성일 : 예를 들면 이훈 선생님 계실 때부터 『분류기사대강』같은 경우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소장하고 있는 것은 원문을 탈초해서 인쇄가 올해까진 다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부터인가는 이제 번역, 우리말로 번역한 걸 내는데 시간이 문제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1년에 한 권, 두 권 이렇게 하더라도 또 『분류기사대강』같은 경우도 국사편찬위원회가 소장하고 있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니면 대마도에도 있고 또 일본 국회도서관의 수장이 있고 해서, 『분류기사대강』 하나만 하더라도 굉장히 분량이 많고 할 일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관수일기』가 거의 별본이 없이 장기간에 걸쳐서 기록이 있거든요. 또 조선 쪽 사례인 『증정교린지』나 『변례집요』하고 비교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관수일기』를 전부 다 내는 건 불가능하니까 한일관계에 관련된 그것만이라도 발췌해서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면, 앞으로 젊은 연구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귀중한 선물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손승철 : 좋으신 말씀입니다.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에요.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각론으로 들어가면 그게 만만치 않을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지금 자금력도 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은 학회에 연구 제안서를 내고, 예를 들어서 뭐 10년 하는데 3천만 원 든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안을 갖고 얘기를 시작하면 좋겠네요. 원론적인 건 다 우리가 동의하잖아요. 그렇죠?

이훈 : 『교린제성』은 이제 학회에 사료윤독회, 학회 회원들이 윤독회 해가지고 만들어낸 진짜 한일관계사학회 이름으로 나온 책이잖아요. 그런 거를 한일관계사학회 홈페이지에 올릴 수도 있나요?

장순순 : 그렇죠. 요즘에 보니까 부산시사편찬위원회나 이런 데서 자료 나오면 전부 다 pdf로 올리거든요. 동북아 역사재단 쪽으로. 저희도 이렇게 『교린제성』 같은 경우에는 한일관계사학회에 거기에다가 pdf를 올려놓으면 훨씬 좋을 거 같습니다.

손승철 : 하여튼 그게 다 저작권이 문제가 관련이 있는데..., 만약에 『교린제성』을 예로 든다면 그때 참석하신 사람들이 다 동의서를 받아야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뭘 하든지.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한번 내 갖고 한 번 검토해보자고요.

남상호 : 거기와 관련해서 학회에서 할 수 있는 일. 연구성과의 확산과 공유, 그래서 학문의 대중화 이런 것이 하나의 과제라고 했잖아요. 그 전에 우리는 연구 자료의 디지털화. 이게 큰일인 거보다도 그렇게 돼 있는 문서를 읽는, 문서를 읽는 지적 자산. 이것을 대중이랄까, 일반 시민들한테. 초심자 이런 사람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국인을 위한, 한국 연구자가 한일관계사를 할 적에 필요한 그런 서류, 사료, 이런 것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러한 안내서랄까? 입문서 이런 거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우리가 잘하는 게 이제 일본 측 사료 읽는 것이 다른 회보다 좀 낫다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일단 하나 예를 들면, ‘증가문서를 읽어봅시다.’ 근대로 치면 ‘조일수호조규」에 관련된 문서를 읽어봅시다.’ 하는 등, 그것을 읽어낼 수 있는 입문서 혹은 영상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우리 학회에서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 이런 지적 자산의 공유라고 그럴까? 그래서 저번도 확대시키고 그런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증가문서를 읽어봅시다.’ 그러면은 증가문서의 실물을 그대로 놓고서 거기다가 처음에 나오는 구지시지. ‘이것이 어떤 글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문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설명해가면서. 그다음에 현대어로, ‘이걸 이런 식으로 문법에 따라서 해석하면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됩니다.’ 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러한 입문서라든가 책자. 그렇죠. 한국인을 위한, 한국 대중을 위한, 그런 입문서를 발간할 필요가 있고, 발간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성일 : 비슷한 생각을 가지긴 했는데요. 조금 저 시간이 좀 괜찮으실까요. 이것을 혼자 하려면 굉장히 힘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학회에서 예를 들어 30명이 한다고 하면, 한 사람이 하루만 돌아가면 되니까요. 저는 30명이라는 자원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일 한 사람씩 주제별로 해가지고 여기 이제 쌓이면, 쌓이면 이 동영상 디지털 콘텐츠도 할 수 있고 이걸 10년, 20년 계속해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엄청난 축적 자산이 된다고 봅니다. 요즘 이제 그런 환경에 맞게 또 연구 재단이나 이런 데에서 이 프로젝트로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정년하셨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할 수 있는, 그래야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젊은 사람과 또 경력이 많으신 분들과의 소통도 되고. 실제로 젊은 연구자들에게 도움 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합니

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겪어본 바로 말씀드리면, 역사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시간의 학문이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에서 경험이 많고 한 사람들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어서 신구 세대 간의 소통 방법의 하나로 역사 사회 디지털화. 그렇습니다.

손승철 : 아이디어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에는 윤독회 하려고 그러면 일부러 어느 장소를 정해서 가서 만나고 했어야 하는데, 지금 만약에 아이디어라고 하면 그냥 시간만 약속하면 되잖아요. 줌으로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내서 한번 크게 공감대를 형성하면 추진을 해 봐서 할 수도 있는 거죠. 아까 윤독회 하듯이.

자 이제 지금 조금 전 대화를 좀 진전시키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학회 발전을 위한 제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월례발표회를 지금식으로 하는 것에 큰 문제는 없는지, 어떻게 좀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지. 또 아까 학술대회, 국내학술대회, 국제학술대회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또 각종 워크숍이라든지 또는 연수회, 답사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례화시킨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한 말씀씩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역대 회장님들 다 모이셨으니까 개인적으로 회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도 좋고... 또 어려운 점도 좋고, 또 내가 못했지만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같이 1분 스피치 하는 식으로 꼭 그렇게 말씀을 듣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학회 발전을 위한 제안을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시죠. 김동명 선생님 먼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동명 : 네 김동명입니다. 우선 이 자료집을 학술지에 실으려고 하시는 건가요?

손승철 : 오늘 나온 이야기를 다시 정리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김동명 : 다른 것은 몰라도 한일관계사 논문목록은 수록논문만 작성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보면 초반이기 때문에 휘보 이런 것도 들어가 있는데 논문만 작성하는 것이 간결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준비해 온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고를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때는 부회장 제도를 신설했는데 제가 있는 정치학회는 부회장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건의했다가 안됐는데 차기 회장을 좀 미리 정하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걸 여러 번 건의했었는데 저희도 2년 임기니깐 1년 전에 정해 놓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면 잘 정해질 때도 있지만 마지막에 힘든 부분도 있고 그래서 회장 할 분을 미리정해 놓는 것이 어떨지.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부회장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조직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거기서 차기 회장을 발

굴해나가는 제도가 제 생각에는 자리 잡힌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앞으로는 1년 전에 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회지를 4회 발간하게 된 것이 2018년부터였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손승철 교수님 정년하시면서 선생님께서는 정리하신 부분에 빼 놓으셨는데 2017년 9월에 강원대학교에서 학회 창립 25주년 국제학술회의를 마치고 늦게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근데 제가 성함을 잘 모르겠는데 강원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초창기 멤버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중국사인가 한중관계사인가 하시는데, 자기가 초창기 멤버라 너무나 애정이 많은데 왜 한일관계사학회가 4회를 발행을 안 하느냐 4회를 발행을 해야 우수학술지로 갈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술먹고 하고 또 하고 많이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게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에 와서 술이 깨야지고 본격적으로 논의를 한 것입니다. 정말 사실관계를 알아보니 4회 발행을 꼭 해야 하고, 지금은 주춤거리고 있지만 역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등재지 시대는 가고 우수학술지 시대가 오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론화를 하니깐 반대가 너무 심해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당시 총무이사이신 이상규 선생님이, 또 나행주 편집위원장님과 제가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려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기대보다는 나행주 편집위원장님께서 오래 학술지를 만드셨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했던 것은 4회 했다가 원고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고 논문이 적어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였습니다. 손 교수님께서 3번 하실 때도 저희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잘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나행주 편집위원장을 비롯해서 긍정론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4회를 해야 투고가 더 는다. 왜냐하면 금방금방 발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투고했다가 안되는 경우, 바로 바로 다시 투고할 수 있어서 오히려 활성화될 것이다. 이런 의견이 또 힘을 얻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4회 발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마 1회에 6편씩 해서 24편 이상을 발행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정리한 거 보니까 저희가 30편이 훨씬 넘기 때문에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무난하지 않나 해서 저희가 4회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는 크게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점수가 높기 때문에 우수 학술 실적이나 이런 것을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회장할 때 우리 학회의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역시 지방에서 학술대회를 많이 한 것 같아요.

특히 전임 회장님들께서 정년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지방 순회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손승철 교수님 정리하신 부분에는 빠져있었습니다만 ‘정유재란과 동아시아’, 이거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유재란 발발 7주갑 420주년 기념으로 했고 그 다음에 있었던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17년 9월에 학회 창립 25주년 국제학술회의 ‘한일관계사 연구의 회고와 전망’입니다. 이것은 손 교수님이 너무 많이 힘을 써주셔서 교수님이 그때 정년이었기 때문에 그때를 맞춰서 저희가 강원대학교에서 회의를 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립 직후에 『한일관계사 논저 목록』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10주년 때 저희가 ‘한일관계사 연구의 회고와 전망’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으로 특히 선사시대 그다음에 현대 한일관계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가 국제학술회의를 하고 출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여기 정리하는 데 빠져 있습니다마는 하우봉 교수님이 또 정년을 하셔서 저희가 기획 학술회의로 ‘조선 후기 대일관계의 길을 묻다’로 전주에서 학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또 이기용 교수님이 또 정년을 하셔서 그때 천안에 가서 ‘메이지유신과 한일관계의 변용’을 출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8년 12월에 ‘도래인과 고대 한일관계’ 연인수 선생님이 아주 힘을 써 주셔가지고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고대사에서 연구하는 분은 다 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젊은 신진연구자들이 많이 왔었는데 굉장히 흥분하는 연구자들이 많았습니다. 책에서만 혹은 논문에서만 봤던 분들이 한 자리에 다 모였다고 이런 게 굉장히 좋은 기억 같아요. 신진연구자도 우리가 이걸 끌어들이 수 있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아까 여러분들이 하신 거와 같이 역시 지금 신진연구자를 어떻게 양성하고 또 영입할 것인가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발표 기회를 주고 아니면 또 부담이 가더라도 오히려 토론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학술상을 적극적으로 좀 아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왔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석사 논문 좋은 논문 같은 것은 신게 하는데 게재비 같은 것을 지원을 좀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또 논문이 정말 괜찮다고 판단이 되면 격려비도 좀 주는 것도 좋고,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학회의 애정을 가지면 또 계속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되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학회의 특징이라고 봅니다만 수도권 그다음에 지방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아까 제가 우연히 저희는 많이 했습니다만 역시 지방에서의 학술회의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하고 또 저희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사적지 답사,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기억해 보면 했던 대회가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사적지 답사를 같이 해서 그때 지방에서의 학술회의를 의무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여러 분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인접 학문 분야와의 협력 저도 가끔 이렇게 투고를 물어볼 때 “이런 논문을 발표해도 됩니까?” 이렇게 문의가 오면 사실 굉장히 망설일 때가 많습니다. 이게 한일관계사 영역에 들어간다고 해야 될까 안 돼야 될까 하는데 제 생각은 너무 그런 데 망설이지 말고 어느 정도 그냥 아주 이상한 논문이 아니면 우리 학회에 신는 것이 더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오히려 누구 학회를 알게 되고 또 참여하게 된 계기가 되기 때문에 아무 관계없지 않으면 웬만하면 실어주는 게 더 추세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다음에 이게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일본 학계 또는 연구자들하고의 교류 그리고 논문도 가급적이면 일본연구자들도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승철 : 예 감사합니다. 학회 발전을 제언 중에서 혹시 또 개별적으로 하실 분 있으신가요?

연민수 : 학회지를 보며는 논문은 엄청나게 많아요. 편수는 열 몇 편 해가지고 그냥 거의 400페이지 이상 되는 학회지로서는 어떻게 보면 양적으로는 진짜 압도하는데 이제 문제는 너무 두껍고 이제 관심 있는 사람 외에는 사실 그걸 잘 안 읽게 되고 그런 경향도 있는데 저는 일본의 사학 잡지 같은 경우는 좀 매달 나오지만은 논문이 한 2편, 3편 나머지는 다 서평이에요. 자기소개라든가 그래서 이 정보지로서의 역할도 중요하거든요. 최근에도 이제 회원들 책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서평이 안 나오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거는 누가 자기가 서평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임원진들이 책임자가 누구냐 그래서 부탁을 해서 소개를 해야 서평을 보고 내용도 좀 알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자료 나왔으면 자료 소개도 하고 이런 비중을 좀 늘렸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편수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한 편 낼 때마다 여섯 편 6편이라고 그랬나요. 24편 그러면 기본료만 채우고 무조건 투고하면은 다 실어주는 게 아니라 심사를 좀 엄격해서 가능하면 오류도 줄이고 논문 수준이 전체적으로 올라가야 위상도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편수에 너무 오버되며는 컷트도 해서 조절을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전에 학회 차원에서 대중서 『한일관계 2천년』 왜곡과 콤플렉스 역사』가 인기가 좋았는데 그 이후에 보완해서 책 세 권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사보고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 대중서가 안 나와요. 그래서 개설서에도 시대별 그냥 통사여도 좋고 뭐 『강좌 한일관계사』도 한 번 내지 않았나요? 예. 그런 식으로 기획을 해서 지금 여기 쓸 수 있는 집필진들이 상황에 갖춰져 있고, 그동안의 연구도 많이 구축되고 했으니 기획을 해서 일종의 수입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히트 쳐서 한 1만 부 정도 나가면 인세 엄청 많이 받아요. 그런 게 학회 선정도 되고 공부도 되고 또 수업 교재로서 많이 활용되고 많이 팔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코로나가 좀 풀리게 되면 사실 심심한 것도 있고, 답사 각자 아까 김동명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해외 답사 같은 경우도 요즘 다른 학회를 보면 상당히 많이 나가요. 일본이야 다들 많이 가지만 일본 이외의 지역도, 꼭 일본만 가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중국 중앙아시아부터 해서 유럽의 그런 문화도 좀 접해서 그렇게 같이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거야 이제 희망자에 한해서 방학 때 추진하면 또 가서 공동학술회의도 할 수도 있고 그런 걸 좀 추진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손승철 : 예 알겠습니다. 교양서도 사실 중요한 제안인데 동북아역사재단에서 하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부터 학회에서 그게 내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좋은 제안 하여튼 감사합니다.

장순순 : 잠시만요. 오늘 한문종 선생님이 참석을 못하셔가지고 저에게 메일 보내주셔서 그냥 읽겠습니다.

한문종 의견서 : 201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년간 11대 한일관계 학회장을 맡았습니다. 한일관계사학회가 출범한지 엇그제 같은데 벌써 30주년을 맞이했다니 감개무량합니다.

니다. 회의에 직접 참석해서 축하드려야 하지만 코로나19에 감염되어 부득이 글로서 축하를 대신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멀리서 남아 다시 한번 한일관계사학회 창립 30주년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두 가지를 건의 드립니다. 우선 재임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학회 창립 20주년을 맞이해서 2012년 5월에 강원대에서 한일관계사학회 주관으로 일본의 조선왕조실록운독회, 세종실록 연구회 팀과 함께 ‘조선시대의 한국과 일본’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 우리 학회 회원은 물론 일본의 무라이, 기타지마, 사에키 선생 등 많은 한일 간에 저명한 학자들이 참석해서 성황리에 학술대회를 마무리한 것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물론 이 학술대회를 개최하는데 강원대의 손승철 교수님이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고 이 자리에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일관계사 연구가 더욱 발전하고 준비된 학회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일이 선행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학회 활동이 학술적인 부분에만 많이 치우쳐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술적인 연구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사회적인 활동으로서 한일 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현안들, 예를 들면 위안부 문제나 독도 영유권 문제, 일본 교과서 일본 문제 등에 대해서 학회 차원에서 대응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학회의 목소리를 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둘째로는 학문 후속세대의 양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공부하는 석·박사 학생 중에 한일관계사를 전공으로 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학회에서 석·박사 과정생들이 한일관계사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연구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학회 차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일관계사학회 창립 30주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우리의 학회가 더욱 발전하여 중견학회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손승철 : 네 감사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그러면 역대 회장님들 한 말씀씩 돌아가면서 말씀하시는 상황이 되었네요. 그 옆에 현명철 선생님부터 죽 돌아가면서 한번 하죠. 아무 얘기를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도 좋습니다.

현명철 :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월례발표회를 서강대에서 하고, 그다음에는 코로나 때문에 줌으로 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코로나였고요, 또 하나는 아주 한일관계가 극단적으로 나빠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 학회가 굉장히 발전하게 되는 것도 또 어려운 것도 그러한 그 시대적인 요청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우봉 선생님께서 청와대에 가서 밥도 얻어먹으셨다고 하는 것 바로 그런 것 아니었나 합니다. 제가 3대 총무를 할 때인데요. 그때 독도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저희가 ‘한일양국간

영토인식의 역사적 재검토'라는 심포지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학회가 처음 마스크에 나오면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닦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오면서 후조사 교과서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저희 학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교과서 대책반에 참여했고, 심포지엄도 하게 되면서 회원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것을 할 때마다 회원들이 많이 늘더라고요. 그리고나서 2000년대 들어가면서 1기 한일역사 공동위가 시작이 되고 보고서가 나오고 그다음에 2기가 시작이 되고 2기 공동보고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여론이라고 할까요? 사회적인 관심이 한일관계사가 그냥 변두리 학문이 아니고 굉장히 필요한 학문이구나, 그러한 인식을 듣고서 조금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일본에서 막 돌아왔을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기억도 안 납니다만 순수 일본사를 해야지 왜 한일관계사를 하느냐 이런 말을 들었는데 그게 뭐가 어때서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순수 일본사는 높은 학문적 가치가 있는 것이고, 한일관계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의문이 듭니다.

하우봉 : 연세대 박영재교수님이 그런 말 자주하셨습니다.

현명철: 아마 그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때 상당히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후에 한일관계사에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편안해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좋았던 것이 민덕기 교수님인가요? 교과서 문제 때문에 굉장히 관계가 나빴는데 월드컵 공동개최 기념으로 통신사 학술대회를 하면서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갈등의 시기보다 평화와 우호의 시기가 더 길었다라고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또 치고 빠지고 어르고 달래고 하면서 결국은 역사가 가는 것이구나. 또 이런 것을 우리 학회에서 해줘야 하는 것이구나, 갈등이 일어날 때는 치열하게 얘기하지만 또 그 와중에서는 대화의 기반을 만들어주는 정치외교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회장으로 있을 때 이 어려운 것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었고 아마 그때 '교린의 길 한·일간의 교역을 묻다'도 일본의 무역보복을 의식하면서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나중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형태로 했다고 생각을 했고요. 한문종 선생님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조치들을 학회차원에서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잘해오지 않았나, 우리가 계속 순간순간에 때로는 미흡한 것이 있긴 했지만 우리 학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한 것이 참 많았다. 우리 학회가 없었다면 이것은 참 어려웠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일본에서도 우리 학회 논문을 읽고 인용할 만큼 됐구나 라고 느낄 때 뿌듯했습니다.

손승철 :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남상호 선생님.

남상호 : 저는 2015년도에 제13대 학회를 꾸리고 임원진을 구성해서 출범하게 됐는데 그때가 한일관계가 위안부, 그다음에 강제 동원이던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또 시끄러울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학회장을 맡게 됐는데 우리 임원진들의 뜻은 학회는 연구를 발표하

는 곳이다. 발표하고 토론하는 곳이다. 그러면서 발표 기회를 많이 만들자. 이렇게 합의하에서 발표 기회를 많이 만들었는데 첫 번째가 정성일 선생님 때부터 모색했던 한일수교 50주년 국제학술회입니다. 그다음에 오늘 학회 활동에 빠져 있지만 UBC 허남린 선생 팀과의 왜관 공동 연구 그런 것이 이제 빠져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계의 영역이라고 그럴까 경계를 좀 넓힌다는 의미에서 정기 학술대회 외에 역사학대회 자유 패널로 참관을 했고, 그런 식의 발표 기회를 많이 만들었는데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한일수교 50주년 기념 학술회입니다. 근데 이 시작이 당시 동북아역사재단에 있었던 연민수 선생이 제안을 해서 교육부의 특별 정책 과제죠. 교육부 특별 정책 과제에 공모해서 채택이 돼가지고 일단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동북아 역사재단으로부터도 지원을 받아가지고 한 6천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틀간 외국인 학자 10분을 모셔야 한다는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거 채우고 총 기조 강연 발표 포함해 가지고 21일 ~22일 이틀간 4개 분과에서 진행했습니다. 아까 나행주 선생님이 말씀했듯이 대규모적인 이런 국제학술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는 목적을 계획서의 실적에 어떻게 썼냐면 학술활동 발표 어떤 취지로 이런 학술 활동을 하게 됐는가, 그런 부분을 따서 그리고 세부적인 그런 학술회의의 목적 그런 부분도 쓰고, 세부 일정 그런 것도 함께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냐 하면 과거 갈등의 역사로부터 새로운 평화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이것이 주제였어요. 한일 수교 50주년, 그런데 그렇게 들어온 모토를 세워서 학술회의를 진행했는데 이 모토가 이 학술회의 할 때마다 보면 되게 비슷한 목적의식을 내세우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하나의 큰 주제가 뭐였냐면 청구권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청구권 문제를 가지고 발표도 하고 일본 요시자와 선생님인가 그분도 발표하고, 그다음에 우리 측에 이영식 선생을 비롯해서 여러분이 토론도 하고 한 그러한 결과물도 이렇게 나와서 반영이 됐는데 그 결과물의 내용을 보면 청구권 문제에서 개인 청구권 문제에 관해서는 애매한 상태로 끝났다. 좀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더 규명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청구권 개인적인 청구권 문제가 소멸됐다고 보는 이런 쪽의 의견이 우세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로부터 오늘날 한일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쟁점은 징용공에 대한 이러한 강제 동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 그것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한일관계가 좀 더 공식화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한일 수교 50주년 기념을 했을 때는 청구권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토론과 이후 대법원 판결은 조금 다른 방향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학술대회를 하면서 그 결과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어떻게 살리고 추후적인 논의라든지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것을 좀 느끼게 하는 그런 한일 수교 50주년기념 국제학술회였습니다.

그래서 학회발전을 위한 제언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는 한일수교 60주년 국제학술대회라든지 이것을 또 한 번 학회에서 추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가능한가. 이런 거를 학회 발전에 대한 제언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모색해 봐야하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또 하나 학회 발전 제언에 관련해서 얘기하자면 그때 그런 학술 활동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이 역시 일본 측의 사료를 어떻게 다 탐색해가지고 해석하느냐 이게 또 큰 문제였어

요. 그래서 아까 정성일 선생님께서 사료 디지털화 이런 거를 얘기할 적에 이 학회에 앞으로의 큰 과제라고 그럴까, 그것이 두 가지였다고 그랬죠. 하나는 대중화 학문의 대중화 그 다음에는 인접 학문과의 조인트 이런 것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문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학회로서는 일본 측 사료를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입문서, 이것을 한국의 독자들에게 이것을 공유해야겠다. 그래서 학회 차원에서 이것을 추진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성일 선생님이라든지 그다음에 장순순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케이를 해야 시작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기초작업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또하나의 제언은 한일관계사라고 하는 이 학문을 다른 인접 분야의 학문과 조인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일관계사라고 하는 것을 학문분류표, 학진 한국연구재단의 학문 분류표에 보면 한일관계사라고 하는 이런 것이 독립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없어요. 그러면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그래서 한참 찾아본 적이 있어요. 동양사에 가서 찾아봐도 독립된 부분은 없죠. 한국사에서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정체성이라고 그럴까 이걸 갖다가 누군가에게 자꾸 얘기해서 어디 분류표라든지 이것부터 어떻게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한일관계사라고 하는 이 분야가 보면 크게는 인접 분야를 보면 역시 동아시아의 국제관계고 이쪽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주변에 학회 같은 거 보면 동양사학과밖에 없어요. 크게는 동양사학과. 동아시아의 국제관계 연구원들이 거기다가 동양사학회 쪽에 가입돼 있죠? 가입되고 있고, 그래서 동양사학회도 보면 전부 다 이 지역, 일본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중국, 중국은 또 이렇게 많이 나뉘어져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동양사학회 내에 국제 관계를 다루는 이러한 분야를 만들 이런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 분야를 만들면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리고 우리 학회하고 조인트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외부 학회 인력과 조인트를 하기 위한 어떤 상징적인 기반이라고 할까 이런 데에서는 기존에 있는 동양사학회 내에 국제 관계를 다룰 수 있는 분야를 만들 필요가 있고 그런 시도를 해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승철 :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이훈 선생님 혹시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이훈 : 저는 2009년에서 10년까지인데, 학회지 등재 그게 큰 현안이었고 한일관계에서는 긴급한 현안 같은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학회 활동하면서 지금 느낀 건, 남상호 회장 얘기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한일관계사학회가 30년 동안 이렇게 유지되어 올 수 있었던 근본적인 힘.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잘 갖추어지고 재정도 이렇게 튼튼한 줄 몰랐고 했는데, 제일 근본적으로 그 힘은 아까 장순순 선생님도 잠깐 언급했지만 윤독회였다고 생각해요.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윤독회를 해서 그 성과물을 『교린제성』처럼 책으로 내서 홈페이지에 올린다거나 이렇게 일반인들이 입문서도 중요하지만 그건 이제 사료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나, 이제 그런 쪽에서 더 접근하기가 쉬울 것 같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윤독회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그것을 책으로 이렇게 간행하는 작업까지, 그냥 읽고 끝나지 말고

아까 어떤 것 읽으셨다고 했죠?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단행본으로 내서 홈페이지에 올린다거나 이런 게 사실은 윤독회하면서 되게 재미도 있고 학회에 대한 애정도 생기고 그랬던 거 같아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손승철 : 고맙습니다. 시간 이제 거의 되는데요. 김동명 선생님 추가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정성일 선생님?

정성일 :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창립 후 2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말았기 때문에 앞서 많은 업적을 쌓아주셔서 어떻게 보면 편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김강일 선생님이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꼼꼼하게 하나가게 도와주셔가지고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중복이 안 되는 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해당이 되는 것인데요. 학회지 평가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니까 구체적인 실명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케네스 로빈슨이라고 저하고 나이도 비슷하고 그래서 친하게 지냈는데 영문초록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학회지 문제만이 아니라 자기가 볼 때 한국에서 나온 잡지, 학술지의 영문 초록을 보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다고 하네요. 우리는 잘 썼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러면 당신이 좀 도와 달라고 하니, 제 말이 끝나자마자 자기도 말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학회지만이라도 미국 사람이 영어권 사람들이 봤을 때, 이해할 수 있게 하자고 의기투합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누가 하냐는 것이냐. 결국 어쩔 수 없이 로빈슨이 해야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사례비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본인이 사례비는 절대 받지 않겠다. 대신 이걸 내가 했다고 말하지 말라는 조건이었습시다. 절대 누구한테든지 자기가 읽어줬다 감수했다. 그런 말 하지 않는 조건으로 자기가 무료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하고 있는 2년 동안 빠짐없이 다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끝난 이후에도 한 1년 정도는 더 보았습니다. 제가 금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른 학회인데요. 그 학회에 논문을 투고했더니 그 학회는 영문 초록은 별도의 전문가한테 유료로 의뢰해서 맡기니까 돈을 내라는 거예요. 나는 로빈슨에게 부탁해서 초록을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진짜 수정을 안 했더라고요. 그게 다 평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평가에서는 영문 초록의 수준까지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발전했죠.

김강일 선생님하고 저하고 장순순 선생님도 마찬가지로입니다마는 학회들이 인쇄하기 전에 교정을 사실 열심히 받습니다. 오탈자 나오는 그런 것들이 지금은 정착이 되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9점 정리가 됐는데요. 이제 100점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이 되는데 가끔 저도 우리 학회지 심사를 합니다. 제가 고민을 하다가 한 번씩 우리 편집위원장님께 제 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아닌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 누구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이 논문을 꼭 실어야 되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연민수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질 관리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고요. 앞으로 더 발전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손승철 : 로빈스 그 친구 지금 어디 있나요?

정성일 : 절대 무슨 회사라고는 하는데, 안 가르쳐주는데 나고야에 있습니다. 국책연구소 같아요. 국책연구소에서 일본의 연구 성과를 영어권에 알리는 곳 같아요. 그러려면 영문으로 번역을 해야 하고, 반대로 영문으로 된 자료를 일본어로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승철 : 감사합니다. 연민수 선생님 혹시 추가로 하실 말씀 없어요. 네, 하우봉 선생님.

하우봉 : 로빈스씨는 학생한테 강의하는 건 되게 힘들어하는데 오늘 혼자 하는 일은 잘 할 것 같습니다.

학회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한 가지만 참 주제넘은 말씀일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학계가 보면 굉장히 착실하게 자료에 접근해서 객관적으로 하는 실증적 연구는 굉장히 충실하게 하고 있고, 지금까지 많이 축적되어 왔다고 생각하는데, 저를 포함해서 하여튼 좀 이론화라 그럴까 그런 방법론이나 어떤 그런 가능성이나 이런 데 대한 어떤 문제 제기나 그런 것이 좀 상대적으로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쪽에 전에 할 말도 없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었다고 생각되는데 최근에 저도 이제 좀 나이도 들고 이제 좀 정년하고 자유스러워 지기도 했으니까 조금 나름대로 이제 그동안 좀 망설였던 거 주저했던 걸 한 번은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제안하듯이 한번 시도해 본 게 있는데, 너무 짤막한 책입니다마는 원증거를 대상으로 ‘조선의 일본학을 열다’ 이렇게 제목을 잡고, 내용도 원증거의 『화곡지』, 『청령국지』에 대해 이제는 ‘일본학’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체계적인 학문의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했어요. 실은 저는 이 평가를 한 30년 전에 제가 확인 논문 쓰고 한 적에도 과연 이걸 ‘왜학’이라 부를 수 있을까 없을까 굉장히 망설이고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실증적인 연구도 축적도 적었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제가 못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 한 30년 사이에 굉장히 각 분야에서 실증적 연구도 많이 축적도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정도 단계가 같으면 충분히 ‘일본학’이라고 부를 만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지금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원증거가 『화곡지』를 지은 시점이 1764년이고, 그다음에 북학 혹은 서학이라고 하는 용어가 교과서에도 익히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다 원증거보다 시간적으로 더 뒤고 영향을 받았어요. 예를 들면 홍대용이 중국에 처음 간 것이 1765년이 그러니까 재미통신사 갔다 오고 난지 2년 뒤고, 그다음에 갔다 와서 이제 연행록을 3부작을 썼거든요. 이거는 원증거가 연행록을 3부작으로 독립시키고, 같은 시기에 갔던 제술관 남옥이 또 사행록을 3부작으로 짓고, 그 영향권의 선후관계를 보면 원증거, 남옥이 먼저예요. 그다음에 박제가의 북학의도 보면 『화곡지』하고 체제라든지 내용이 상당히 비슷해요. 서학은 당연히 북학보다 뒤에 오는 거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보면 그보다 한 20년 더 후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본학이라는 이것도 좀 가설을 이렇게 이제 제시해 놓고 나서 보니까 이

게 북학 서학의 못지않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학술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겠다. 이것 좀 더 보충하고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으면 교과서에도 충분히 오를 수도 있고, 현재 조선 후기 역사 속에서도 일본과의 관계라든지 일본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라든가 실제 내용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전체적으로 하여튼 우리 학계에서 이런 학술적인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실증적인 연구의 기반을 넘어서서 보다 좀 과감한 그런 가설의 제기라든지 또 이론적인 어떤 추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단계에 우리가 들어서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나 해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한일관계 개선에 가는 제언에 대해서도 조금 제가 좀 주제넘은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동안 사실상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간 그 속에는 당시 양국의 정상이 아베하고 문재인 두 사람이 나이도 똑같은 사람이었고, 그 전 단계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렇게 좋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결정적으로 악화된 것은 이제 그 두 사람이 양국의 정상으로 있을 때인데, 지금 하여튼 그 두 사람이 물러나고 세상을 떠나고 이래가지고 그런 상황이고, 지금 현재 새로 들어선 양국의 어떤 정권은 하여튼 적극적이거나 혹은 최소한도 동조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있어가지고, 악화된 양국 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맞이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쪽에서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걸 좀 인센티브를 주고 좀 나갔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실은 현재 지금 윤석열 정권은 굉장히 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기본적으로는 하여튼 98년에 김대중 오블이 게이조의 공동선언 협약이 모델이 될 수 있다 생각이 되고요, 또 그 당시 실은 이걸 이미 한 25년 전 정도의 시간이 지났지만 그 당시로서는 대단히 과감한 결단이고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승부적인 그런 해안과 결단력이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거기에는 지명관 교수님이 상당히 적극적인 조언을 하고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그런 정도로 그건 거의 김대중 대통령이 완전히 주도를 해가지고 상황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런 자세가 지금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역사 공동연구에는 여기 많은 우리 회원들 선생님들 참석하셨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평가는 전망이 어떠신지, 그거는 손승철 선생님한테 들어보고 싶은 이야기긴 한데, 그걸 또 다시 한번 한중일 간에 그런 거 이런 것이 가능한지 어떤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가능하면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선행 모델이 충분히 있습니다. 사실상 조선 후기에 18세기에 저도 이 책에서도 그런 걸 적극적으로 썼습니다마는 그 당시 서울을 허브로 해가지고 중심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최소한도 허브라고는 말할 수 있겠죠. 통과하는 4개 지역으로서 그래서 연행사, 통신사를 통해서 국경과 서울과 동경을 연결하는 동북아시아 3국을 지식, 정보, 문화 이게 다 통할 수 있는 그런 문화의 고속도로를 열고 중심이 됐던 곳이 서울이었고, 그 당시 사람들은 나름대로 어떤 동문 의식이나 상황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봐요. 그게 비록 시기적으로 아주 길지 않고 숫자적으로 보면 아주 일부의 지식인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요컨대 그 당시에 상당히 최상단의 중심부에

있던 어떤 엘리트들이 소위 동아시아 문예공화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국경을 넘어서는 지식인들 문화인들끼리의 어떤 보편적 의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공유했던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이제 프랑스에서 계몽주의 시대 때 나오던 문예공화국 같은 그런 것이 동북아시아에서 있었던 말이죠. 그것을 선도하고 주도했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연결 외교의 허브 역할을 하면서 주도했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런 역할을 우리가 지금 현 상황에서 보다 좀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들었어요.

손승철 : 아주 신선한 말씀이시고 시의적절한 제안입니다. 하선생님은 용산으로 가셔야 되겠는데요. 나행주 선생님 혹시 한 말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나행주 : 아무튼 다른 말씀보다도 연민수 회장님 그다음에 정성일 회장님 말씀해 주신 학회지의 질을 높이자면요. 양적인 정비뿐만 아니고 질적인 깊이도 하자고 하는 말씀 깊이 새겨서 학회지 간행하는 동안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승철 : 고맙습니다. 총무하시는 이승민 선생님 고생 많으신데 한 말씀하시죠.

이승민 : 아닙니다. 저는 한일관계사학회 30주년 되는 뜻깊은 해에 총무를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손승철 : 감사합니다. 사실은 30년 얘기를 읽다 보니까 세월도 짧은 세월은 아니었네요. 참 한 분 한 분 회장님들도 여러 가지 추억이 많이 쌓이네요. 근데 한일관계가 아까 관계 학문 분류가 없다고 했는데 한일관계만 그렇습니까? 한미 관계도 그렇고 한중 관계도 그렇고,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런데 유독이 그래도 한일관계가 이렇게 도드라질 수 있었던 것은 이슈가 많아서이겠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9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노태우대통령이 아메노모리 호슈를 얘기하고, 이명박대통령이 독도도 가고, 역사교과서 문제도 있고, 이슈가 계속 많았지요. 그래서 항상 그만큼 관심이 많은 거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건 우리 학회도 많은 일들을 엄청나게 많이 해왔네요. 보니까 오늘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걸 어떤 형식으로 정리할까, 그건 따로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목차를 정하고, 그다음에 또 개인적인 사적인 얘기도 있고 하는데 그것도 다 포함을 해서 가능한 한 그래도 뭔가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좀 구성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팀도 있고 녹취팀도 있습니다. 그래도 읽을거리를 제공하면서 누가 읽더라도 한일관계사학회가 30년 동안 이런 일을 해왔구나 이런 고민이 있었구나 그리고 앞으로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학회 1세대의 생각이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재구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쨌면 30년 동안에 여러 가지 일도 많지만 분명한 성과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일관계사학회를 한다고 하니까 야 이거 뭐 친일파들 모인 거 아니냐, 이거 뭐 관계사를 어떻게 하느냐, 한국사도 제대로 못하

는 사람들이..., 일본사도 못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한일관계사 하면 한국사도 다 잘하고 일본사도 잘하고 그래서 관계사를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데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노력 끝에 그래서 하나의 장르를 분명히 만들었다고 자부합니다. 근데 하나 아쉬움이 있다면 역사학 대회에 우리 분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다음에는 분과라도 하나 만들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선행해 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장시간 동안 3시간 동안 회고와 전망 그리고 여러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모두 소중한 말씀이었습니다. 향후 학회의 발전을 위해 좋은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저는 회장을 두 번 했습니다만, 제일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정성일과 신동규 선생이예요. 그때 총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많이 고생들 했습니다. 일 많이 하셨지만 그래서 괴로웠을 거예요. 지금도 생각하는데, 정성일 선생과 언젠가 마포에서 둘이서 소주 한잔했는데, 정성일 선생이 씩씩거리며 보도블럭에 주저앉아서 너무 힘들다고 투덜거리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들이 평생 매달리고 있는 한일관계사 학회의 지나온 궤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나온 30년은 우리들 생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자리매김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1세대도 나이가 70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의 이런 마음들을 우리 후배들이, 후학들이 잘 좀 이렇게 시대에 맞게끔 리셋을 해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면서 역대 회장단 간담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너무 감사합니다. 회장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10월 15일 30주년 학술대회 때에 많이 참석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회식에 관해서는 총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승민 :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역대 회장님들 모시고 좋은 시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선생님들 모이셨는데 기념촬영하시고 이후에 저희 식사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식사를 하시면서 여기서 못다 나눈 얘기들을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소는 박물관 입구로 나가시면 길 건너서 오른쪽으로 쪽 가시면 산들해 송파점이라는 한정식 집입니다. 김문자 회장님 인솔하에 가시면 될 것 같고요.(끝)